

英語音韻論序說(Ⅲ)

田 相 範
(英語教育科)

3. SPE에 대한反省

3.1. 抽象的 基底形에 대한反省

20세기에 들어와 우리가 얻은 가장 큰 言語學的 業績의 하나로 SPE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이 책이 言語學에 준 충격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業績이 그렇듯이, SPE도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무사할 수는 없었다. 이 책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가시기 시작하자, 저자들이 보지 못했던 결점들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들이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비판은 抽象性에 관한 것이었다.

SPE를 자세히 읽어 보면 많은 경우에 Chomsky와 Halle가 다음과 같은 手順에 의해 規則과 基底形을 찾아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첫째, 자명한 基底形으로부터 表面形을 導出하기 위한 規則들을 설정한다. 둘째, 이 規則들을 다른 여러가지 基底形에 適用하여 그 規則들의 正當性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規則들을 수정한다. 셋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規則이 설정되면, 주어진 表面形에서 이 規則들의 適用을 解除하여 基底形을 찾아낸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boy [boy]의 基底形으로, /bɔ/를 설정한 경우이다. SPE에서 Chomsky와 Hall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表面形[bɔy]로부터 그것의 基底形 /bɔ/를 얻어내고 있다. 첫째, [ɔy]의 基底形은 單母音이다. 그 까닭은 英語에는 音聲的으로 [āy] (ride), [æw] (loud), [ɔy] (boy)의 세 二重母音단이 있는데, 이 중 [āy]와 [æw]는 §2.5에서 보았듯이 각각 基底母音 /i/와 /ū/에서 導出해냈던 것이다. 따라서 [ɔy]를 /ɔy/에서 導出한다면 英語에는 /ɔy/ 하나만을 위해서 VG의 결함을 語彙目錄에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ɔy]를 [āy]나 [æw]의 경우처럼 어떤 單母音 V*로부터 導出한다면 그만큼 英語의 形態素構造條件(morpheme structure condition)이 간단해진다.

둘째, 미지의 單母音 V*는 緊張母音이어야 한다. 우리는 앞서 §2.4에서 英語에서는 緊張母音 뒤에 [y]나 [w] 같은 轉移音이 二重母音化 規則(159)에 의해 삽입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ɔy]의 [y]를 얻기 위해서는 V*는 緊張母音이어야 한다.

셋째, V*는 前舌母音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二重母音化規則(159)에 의하면 緊張前舌母

좁인 /i/나 /e/뒤에서는 [y]가, 後舌緊張母音인 /ü/나 /ö/ 뒤에는 [w]가 삽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V*는 /ɔ/일 수 없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二重母音化規則을 아래에 반복해 놓았다.

$$(159) \phi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voc} \\ -\text{cons} \\ +\text{high} \\ \alpha \text{ back} \\ \alpha \text{ round}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 \text{tense} \\ \alpha \text{ back} \end{array} \right] \text{---}$$

네째, V*는 圓唇母音이다. 왜냐하면 다른 平唇緊張前舌母音들은 모두 다른 表面形의 基底母音이기 때문이다. 즉, /i/, /e/, /æ/는 각기 [āy], [iy], [ēy]의 基底母音인 것은 (164)에서 본 바와 같다.

다섯째, V*는 低母音이어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V*가 [-back, +round]의 資質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168)에 제시했던 母音推移規則에 의하면 이 規則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backness와 roundness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V*의 backness와 roundness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고, 따라서 V*에는 母音推移規則(168)이 適用되지 않으므로 低母音[ɔy]를 새로운 規則의 첨가없이 導出하기 위해서는 [ɔy]의 基底母音도 低母音이어야 한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母音推移規則(168)을 아래 반복해 두었다.

$$(168) \left[\begin{array}{l} \gamma \text{ back} \\ \gamma \text{ round}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alpha \text{ high}] / \left[\begin{array}{l} \alpha \text{ high} \\ -\text{low} \end{array} \right] \\ [-\beta \text{ low}] / \left[\begin{array}{l} \beta \text{ low} \\ -\text{high}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 \text{tense} \\ + \text{stress} \end{array} \right]$$

그리고 보면 V*는 [+tense, -back, +round, +low]의 資質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æ/라는 것을 SPE에서 밝혔었다. Chomsky와 Halle는 /æ/의 발견이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偶然한 空白(accidental gap)을 메꿔준다고 말한다. 즉, /æ/가 주어지므로써 이미 밝힌 /æ, ā, ɔ/와 더불어 均衡잡힌 低母音體系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비판이 있어 왔다. 그 중 다음과 같은 Hoard (1972)의 비판이 대표적인 것이다. 우선 그는 SPE에서의 /æ/의 抽出은 二重母音規則(159)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미 보았듯이 規則(159)는 前舌緊張母音 뒤에는 [y]를, 後舌緊張母音뒤에는 [w]를 삽입하는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 [ɔy]의 基底母音으로 前舌緊張母音 /æ/를 택했던 것이다. Hoard는 規則(159)의 잘못을 지적하고, 前後舌의 구별대신 平唇母音 뒤에서 [y]가, 圓唇母音 뒤에서 [w]가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boy의 발음은 [bɔy]가 아니라 [böy]가 타당하다고 말한다. 즉 boy의 母音은 그 혀의 높이가 cut의 그것보다 더 낮지 않다고 말한다. 끝으로 그는 비록 SPE (p. 122)에서는 exploit~exploitation에서 보듯, oi는 그 뒤에 語尾가 올 때 母音의 弛緩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joint~junction,

*destroy-destruction, poignant-pungent*에서 보듯 [oy]~[ʌ]의 交替의 예가 허다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boy*의 基底形은 /bā/라고 말한다. /bā/는 새로운 二重母音化規則에 의해 [bāy]로, 다시 圓唇音化規則에 의해 [bōy]로 바뀌게 된다.

한편 Hoard는 /æ/의 설정이 偶然한 空白을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SPE*에서 설정한 英語의 母音體系는 (207)이 보여 주는 바와 같다.

| | | | | | | |
|-------|-----|---|-----|-----|---|---|
| (207) | (a) | i | ū | (b) | i | u |
| | | ē | ō | | e | o |
| | | æ | ā ɔ | | æ | ɔ |

즉, 여덟개의 緊張母音과 여섯개의 弛緩母音이 있다. (207a)에서 보듯 /æ/의 설정으로 低母音은 모두 메꿔졌으나 前舌圓唇母音은 /ü/나 /ö/는 없이 /æ/ 뿐이다. 또 汎語的인 內包關係(implicational relation)를 보아 어떤 言語도 /ü/나 /ö/ 없이 /æ/ 만이 있을 수가 없다. 참고로 Hoard가 제안한 英語母音體系는 (208)과 같다.

| | | | | | | | |
|-------|-----|---|---|---|-----|---|---|
| (208) | (a) | i | ī | ū | (b) | i | u |
| | | ē | ʌ | ō | | e | o |
| | | æ | ā | ɔ | | a | |

우리가 /æ/를 抽象的인 基底音이라고 하는 까닭은 英語에서 /æ/가 表面에 나타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SPE*의 /x/도 /æ/ 못지 않는 抽象的인 基底形이다. /x/는 독일어 등에서 볼 수 있는 軟口蓋摩擦音(velar fricative)으로서, 英語에서 語頭に 오는 [h]나 *right~righteous* 등에서 強勢와 緊張母音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right*의 基底形 /rix/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規則의 適用을 받아 [rayt]가 된다.

$$(209) \left[\begin{array}{c} V \\ +high \end{array}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array}{c} +tense \\ -round \end{array} \right] / \text{---} \left[\begin{array}{c} x \\ r \end{array} \right]$$

$$(210) \left\{ \begin{array}{c} x \\ r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text{---} C$$

paradigm~paradigmatic 등의 交替形을 보면 [ix]→[ay] 뿐만 아니라 /ig/→[ay]의 현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g \rightarrow r / \text{---} [+nasal] \#$ 과 같은 規則을 둔다면 (209)와 (210)에서 보듯 x와 r를 한때 묶어, 보다 일반적인 規則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x/는 어떤 偶然한 空白도 메꾸지 않고 있으며, /x/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필요없었을 /x/→[h]의 規則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抽象的 基底音의 경우 못지 않게, 이미 만들어 놓은 規則들에 알맞도록 基底形을 조작하는 예 가운데는 근거없는 괄호매김(bracketing)이 있다. 예를 들어 *parallel*을 보자. 이 단

어는 ¹parallel³의 強勢를 갖는다. 만약 이 단어의 基底形이 /parallel/이라면 主強勢規則(99)에 의해 *¹parallel이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Chomsky와 Halle는 parallel의 基底形을 [para[lels]_{stem}]_{Adj}로 잡고 있다. 主強勢規則(96ei)은 第一循環인 [lel]에 適用하여 第一強勢를 부여하고, 다시 主強勢規則(99ci)와 規則(71)에 의해 ¹parallel을 얻게 된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主強勢規則(99)를 아래 반복해 놓았다.

$$(99) \quad V \rightarrow [1 \text{ stress}]/[X \text{---} \left\{ \begin{array}{l} C_0 \left[\begin{array}{l} V \\ -\text{tense} \end{array} \right] C_0^1 \left[\begin{array}{l} \alpha \text{ voc} \\ \alpha \text{ cons} \\ -\text{ant} \end{array} \right]_0 \end{array} \right\} \begin{array}{l} (i) \\ (ii)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left(\begin{array}{l} +C_0 \left[\begin{array}{l} V \\ -\text{stress} \\ -\text{tense} \end{array} \right] C_0]_{NA} \\ \left[\begin{array}{l} V \\ -\text{stress} \\ -\text{tense} \end{array} \right] C_0]_N \end{array} \right) \begin{array}{l} (a) \\ (d) \end{array} \\ \left[-\text{seg} \right] C_0^1 V C_0]_{NA} \quad (b) \\ C_0^1 V C_0]_N \quad (c) \end{array} \right.$$

: X내부에는 #이 들어 있지 않음.

문제는 [para[lel]_{stem}]_{Adj}과 같은 괄호매김이 전혀 統辭論的인, 形態論的인 근거가 없는데 있다. Chomsky와 Halle는 괄호매김을 區別資質(diacritic feature)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필요한 表面形을 얻기 위해 근거없이 基底形을 조작한 예로는 이것 외에도 形態素境界를 남용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앞서 (74), (75), (76), 그리고 主強勢規則(99a) 등에서 어떤 形容詞가 弛緩母音으로 된 語尾로 끝났으면 그것은 무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名詞에 強勢를 부여하듯 부여한다는 것을 알았다. ¹personal, ¹anecdotal, ¹dialectal 등은 모두 -al이라는 語尾로 끝나 있으므로, 強勢를 부여할 때에는 ¹person anecdote, ¹dialect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anecdote나 dialect 처럼 強音節로 끝난 경우에는 바로 그 音節에 強勢가 오고 person 처럼 弱音節로 끝난 경우에는 그 弱音節 바로 앞의 音節에 強勢를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이치로 repugnant 같은 것도 /repugn+ant/와 基底形에서 導出해 낸다. repugn은 'disgust'라는 뜻의 名詞이다.

그러나 haggard의 경우는 어떠한가? 만약 이것의 基底形을 /haggard/라고 하면, 主強勢規則(99)에 의해 *¹haggard 처럼 잘 못된 表面形이 나온다. repugnant도 /repugnant/가 基底形이라면 *¹repugnant³와 같은 잘 못된 表面形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repugn+ant/처럼 形態素境界를 인정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Chomsky와 Halle는 haggard의 경우도 /hagg+ard/와 같은 基底形에서 表面形 ¹haggard를 導出한다. 그러나 McCawley (1974)도 지적하고 있듯이, /hagg+ard/에서의 形態素境界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점에서라면 /mod+ern/, /hon+est/도 마찬가지다.

3.2. 循環規則들에 대한 反省

*SPE*에서 가장 중요한 規則은 主強勢規則(99)일 것이다. Chomsky와 Halle는 이 規則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Ross (1972)는 이 規則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11)의 예들을 보자.

(211) ¹daffodil ³¹Amazon ³¹albatross

이 단어들은 그 안에 形態素境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主強勢規則(99a)를 適用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弛緩母音이 들어 있는 音節로 끝나고 있으며, 그 앞의 音節은 弱音節이므로 主強勢規則(99bi)이 適用되어 *¹daffodil, *¹Amazon, *¹albatross 같은 잘못된 導出形을 生成하게 된다. 強勢가 없는 끝 音節은 母音弱化規則(128)의 適用을 받아 *¹Amazon은 *[æməzŋ]이 된다. ¹Amazon과 ³Napoleon을 비교해 보면 이 같은 強勢의 차이가 끝 音節의 音質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212)와 같은 強勢弱化規則을 설정하여 Amazon과 같은 단어에게만 適用케 하는 것이다.

(212) V→[2 stress]/¹VC₀VC₀-C₀#

이 強勢調整規則 (71)이 適用되어 強勢 2가 3이 된다.

다른 하나의 가능한 해결방법은, 主強勢規則 (99)을 보완하여 끝 音節에 強勢를 부여하고, 이어 交替強勢規則 (92)에 의해 이 強勢를 두 音節 앞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213)을 主強勢規則의 (f)로 보완하도록 한다.

(213) V→[1 stress]/-C₀]N

Ross (1972)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들어 (212)가 아니라 (213)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212)는 英語의 規則이 아니다. 왜냐하면 Berlin, cadet, guitar 등에서 볼 수 있듯, 語尾에 弛緩母音이 들어 있는 母音이 오는 경우에도 主強勢가 그 音節에 오는 수가 많다. 이들에게 [-MSRb]라는 規則資質(rule feature)를 부여하면 規則 (213), 즉 主強勢規則 (99f)에 의해 語尾에 強勢가 오게 된다.

둘째, ¹Hottentot³와 같은 表面形은 規則 (212)로서는 얻을 수가 없고, 規則 (213)과 交替強勢規則 (92)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Hottentot*는 마지막 音節이 弛緩母音으로 되어 있고, 또 바로 그 앞의 音節이 強音節이므로, 主強勢規則 (99b)에 의해 *¹Hottentot⁰와 같은 잘못된 強勢를 얻게 되어 (212)와 같은 強勢弱化規則이 適用될 여지가 없어지고 만다. 왜냐하면 規則 (212)는 主強勢가 있는 音節로부터 오른쪽으로 두번째 音節에 第2強勢를 부

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規則(213)의 해결방법을 택하는 경우, [-MSR b,e]의 規則資質이 표시되어 있는 基底形 [hotV̄ntot]_N는 規則(213), 즉 主強勢規則(99f)에 의해 ¹Hottentot의 強勢를 받게 되고, 이어 交替強勢規則(92)에 의해 ¹H²ottentot가 되고, 끝으로 強勢調整規則(71)에 의해 ¹H³ottentot의 바른 表面形을 얻게 된다. 여기서 보았듯 規則(213)의 목적은 主強勢規則(99b)에 의해 強勢를 받지 못한 끝 音節에 強勢를 부여하는 것이다.

Ross (1972)는 交替強勢規則(92)의 수정의 필요성도 논하고 있다. 참조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規則(92)를 반복해 놓았다.

$$(92) V \rightarrow [1 \text{ stress}] / -C_0 = VC_0 \overset{1}{V} C_0]_{NAV}$$

規則(92)는 (96)에 제시된 *hurricane*이나 *anecdote* 등의 強勢形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主強勢規則에 의하여 語尾의 強音節에 主強勢가 놓였던 것을 두 音節 앞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規則(70)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214)의 예들이 보여준다.

| | | |
|-------|--------------------------------------|---------------------------------------|
| (214) | I | II |
| | ¹ ³ carbine | ³ ¹ boutique |
| | ¹ ³ satire | ³ ¹ crusade |
| | ¹ ³ quinine | ³ ¹ esteeen |

SPE에서 (214 I)을 生成하는 유일한 방법은 規則(215)를 설정하여 主強勢規則(99)보다 먼저 適用케 하는 길이었다.

$$(215) \left[\overset{V}{+tense} \right] \rightarrow [1 \text{ stress}] / + -C_0 \#$$

規則(215)에 의해 vac+ate는 끝 音節에 強勢를 받게 되고, 뒤에 主強勢規則(99c)에 의해 強勢가 앞 音節로 옮겨가게 되어, 결국 ¹ ³vacate 같은 強勢形을 갖게 된다. (規則(158)의 適用을 받는 것에는 名詞나 形容詞보다 動詞가 더 많을 것이므로, 主強勢規則(99c)는 動詞에도 適用되도록 規則(117)에는 수정되어 있다). 이것이 基底形 속에 形態素境界를 갖지 않는 ³ ¹create와 ¹ ³vacate의 強勢形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基底形 안에 形態素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vac+ate는 vacant 등의 交替形을 보면 基底形 안에 形態素境界를 설정한 것이 남듯이 하지만, (214 I)의 단어들은 어떤가? 우리는 여하한 근거로도 (214 I)의 단어들은 形態素境界를 가지고 있고, (214 II)의 단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形態素境界를 區別資質 대신으로 쓴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haggard의 強勢形을 얻기 위해 /hagg+ard/와 같은 근거없는 基底形을 설정했던 경우와 같다.

Ross는 Emonds와 Kiparsky의 제안을 받아 들여 交替強勢規則이 3音節 이상의 단어 뿐만

아니라 2音節의 단어에도 適用되도록 規則 (92)를 (216)처럼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16) V \rightarrow [1 \text{ stress}] / -C_0(=)C_0 (VC_0) \overset{1}{V}C_0 \#$$

規則 (216)이 있는 한, 規則 (215)는 필요없게 된다. (214)의 단어들은 모두 主強勢規則 (99e)에 의하여 끝 音節에 主強勢를 받게 된다. 한편 (214 II)의 단어들은 [-Rule 216]의 規則資質을 가지며, 따라서 (214 I)의 단어들만이 交替強勢規則(216)의 適用을 받게 된다.

交替強勢規則 (216)을 더욱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¹piccalilli와 ³Vermicelli의 경우가 보여 주고 있다. ¹Piccalilli와 같은 強勢形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piccalilli/가 基底形이라고 하면 主強勢規則 (99b)에 의해 *¹piccalilli와 같은 잘 못된 表面形이 나오게 된다. 만약에 /p¹vkælvli/를 基底形으로 잡는다면 그 表面形은 *[p¹kælvli]가 될 것이며, 한편 /pikælvli/와 같은 基底形에서는 *[p¹kælvli]와 같은 잘 못된 表面形이 나온다.

SPE에 의한 유일한 해결방법은 ¹piccalilli의 基底形을 /pikvlill+y/로 잡는 것이다. 主強勢規則 (99a)는 弛緩母音이 들어있는 語尾를 무시하여 /lill/에 第1強勢를 부여할 것이고, 主強勢規則 (99d)가 이 強勢를 두 音節 앞으로 옮겨 갈 것이다. Vermicelli는 내부에 形態素境界가 없으므로 主強勢規則 (99b)에 의해 ³vermicelli를 얻게 되며, 語尾가 母音으로 끝났기 때문에 主強勢規則 (99c,d) 어느 것으로도 強勢를 앞으로 옮겨 갈 수가 없다.

이러고 보면 ¹piccalilli와 ³vermicelli의 強勢의 차이를 모두 설명한 듯싶으나 문제는 /pikvlill+y/에서의 하등의 근거가 없는 形態素를 설정한 데 있다. 이것은 haggard나 carbine 등의 단어 내부에 形態素를 설정하려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분석이 될 것이다. 앞서 carbine의 경우에서 그랬듯이 規則資質을 사용하여 例外는 例外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앞서 Ross는 우선 交替強勢規則 (216)을 또 다시 (217)처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7) V \rightarrow [1 \text{ stress}] / -C_0(=)C_0 (VC_0) \overset{1}{V}C_0(i) \#$$

Piccalilli 같은 단어는 [+ASR]의 規則資質을, vermicelli는 [-ASR]의 規則資質을 語彙目錄 속에 가지고 있게 된다.

規則 (217)에서 맨 끝 괄호 속의 母音을 특히 (i)라고 밝히려 하는 까닭은, /o/나 /æ/와 같은 경우에는 (218)의 예들이 보여 주듯이 ¹piccalilli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 | |
|-------|-------------------------|--------------------------|
| (218) | I | II |
| | ³ peccadillo | ³ sarsparilla |
| | ¹ Monticello | ³ Tuscaloosa |
| | ³ allegrotto | ³ Minnesota |

規則 (217)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현상은, (219)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대개 그 철자가 -y

로 끝나는 것들이 [+ASR]의 規則資質을 가지며, -i로 끝나는 것들이 [-ASR]의 規則資質을 가진다.

| | | |
|-------|---------------------------|---------------------------|
| (219) | I | II |
| | ¹ ³ | ³ ¹ |
| | ceremony | Mississippi |
| | ¹ ³ | ³ ¹ |
| | category | macaroni |
| | ¹ ³ | ³ ¹ |
| | picadilly | peperoni |

McCawley (1974)에서는 複合語規則 (48)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Chomsky와 Halle가 처음 만들었던 複合名詞規則 (19)를 (48)처럼 一般化한 것은, 規則 (19)가 ⁱheart-³broken이나 ¹air-³condition 등에서 볼 수 있듯이 形容詞나 動詞에도 適用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해 (220)에 제시된 것과 같이 21의 強勢形을 갖는 形容詞句나 動詞句가 ¹hard-³headed 처럼 13의 強勢形을 갖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고, 規則 (48)과 같은 실수는 SPE의 저자들의 관찰이 부족했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 | |
|-------|---------------------------|---------------------------|
| (220) | I | II |
| | ² ¹ | ² ¹ |
| | broken-hearted | force-feed |
| | ² ¹ | ² ¹ |
| | species-specific | second-guess |
| | ² ¹ | ² ¹ |
| | jet-propelled | hand-copy |
| | ² ¹ | |
| | cherry-red | |

3.3. 表記規約에 대한 反省

辨別的資質과 表記規約은 生成音韻論의 商標와 다름없는 것이었으나, 이것들은 文法理論으로 하여금 說明的妥當性(explanatory adequacy)을 갖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다. 그러나 表記規約 중에는 妥當성이 결여되거나 무리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表記規約에 대하여 가장 많은 비판을 가한 것은 McCawley (1970)였다. 우선 그는 中괄호表記(brace notation)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라고 말한다. 첫째, 規則이 잘못된 경우이다. 즉, 規則을 바르게 썼더라면 中괄호表記가 필요없었을 경우이다. 둘째, 두 規則이 連接的(conjunctively)으로 適用되지 않는 경우에 中괄호表記를 사용한 경우, 셋째, 우연히 順序가 連接的이며 또 우연히 같은 부분이 있어 中괄호로 묶이긴 했으나 하나의 現象이 아닌 경우등이다.

물론 McCawley가 지금까지 문헌들에서 사용된 中괄호의 예를 모두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Anderson (1974)이 보여 준 다음의 예를 보자.

(221) V→[-back]/ C_i

(222) V→φ/VC_CV

단약에 規則 (221)과 規則 (222)가 인접해 있다면 이 規則은 그 구조상 공통된 부분이 있으므로 中괄호를 사용하여 規則 (223)으로 縮約될 수 있다.

$$(223) \quad V \rightarrow \left\{ \begin{array}{l} [-back]/ C_{oi} \\ \emptyset/VC-CV \end{array} \right.$$

그런데 역사적인 변화의 한 과정으로 規則 (221)이 非低母音에만 適用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224) 처럼 規則 (221)을 바꿔 써야 한다.

$$(224) \quad \left[\begin{array}{c} \text{V} \\ -low \end{array} \right] \rightarrow [-back]/ C_{oi}$$

規則 (221)과 規則 (222)를 (223) 처럼 縮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規則이 항상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두 規則 중의 어느 하나가 간단해지거나 脫落하거나 다른 規則과 再配列되면 이같은 변화가 꼭 같은 시기에 다른 規則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規則 (221)에 일어난 변화가 꼭 같은 시기에 規則 (222)에도 일어난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規則 (221)과 規則 (222)가 나란히 놓였다면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그런데 中괄호規約는 縮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지 못한다.

*SPE*에는 同化나 異化現象을 그리고 그 밖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알파表記(alpha notation)規約이 마련되어 있다. Chomsky와 Halle에 의하면, 알파表記는 (227)이 아니라 (225)와 같은 自然스러운 현상만을 (226)과 같은 하나의 規則으로 縮約해 준다.

$$(225) \quad [+nas] \rightarrow \left[\begin{array}{c} m \\ n \\ \eta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p \\ t \\ k \end{array} \right]$$

$$(226) \quad [+nas] \rightarrow \left[\begin{array}{c} \alpha \text{ ant} \\ \beta \text{ cor}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C \\ -cont \\ -nas \\ \alpha \text{ ant} \\ \beta \text{ cor} \end{array} \right]$$

$$(227) \quad [+nas] \rightarrow \left[\begin{array}{c} m \\ n \\ \eta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t \\ k \\ p \end{array} \right]$$

알파表記를 쓰는 한, (227)과 같은 현상은 하나의 規則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러고 보면 알파表記는 自然스러운 音韻現象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자동적으로 식별해 주는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McCawley (1974)가 지적한 대로, 알파表記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不自然스러운 規則을 쓸 수 있다. (228)은 알파表記가 사용되긴 했으나, 도저히 自然스러운 音韻現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28) \quad [+cons] \rightarrow \left[\begin{array}{c} -\alpha \text{ cor} \\ -\beta \text{ back} \\ \beta \text{ ant} \\ \beta \text{ high}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cons \\ \alpha \text{ cor} \\ \beta \text{ back} \end{array} \right]$$

*SPE*에 분명치 않은 表記 가운데 上位數(superscript), 下位數(subscript)라고 불리우

는表記가 있다. 이들은 각기 分節音의 上限數와 下限數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X)₅은 X라는 分節音이 적어도 세개, 많아야 다섯개까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小괄호를 사용하여 XXX(X(X))처럼 나타낼 수도 있다. 이처럼 上·下位數表記를 小괄호表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Anderson (1974)은 上·下位數表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SPE에서의 規約에 의하면 小괄호表記規約와 上·下位數表記規約과는 같지 않다는 데 있다. 前者는 離接的(disjunctively)으로 適用해야 하며, 後者는 同時에(simultaneously) 適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C)=C₀의 관계가 성립하면서 規則(229)와 規則(230)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29) C→φ/(C)#

(230) C→φ/ C₀#

規則(229)는 語尾子音群의 첫 子音만을 削除할 것이고, 規則(230)은 語尾子音群을 모두 削除한다. SPE에는 規則(230)을 同時에 適用해야 한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다.

表記規約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자리가 확고한 것은 小괄호表記이다. 서로 인접하여 小괄호로 묶이는 規則들은 離接적으로 適用되도록 規約지워져 있다. 그러나 Kiparsky (1973)가 지적했듯이, 自然言語 가운데는 小괄호로 묶이면서도 離接적으로 適用해서는 안되고 대신 連接적으로 適用해야 하며, 한편 서로 인접하여 離接적으로 適用하면서도 小괄호로 묶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괄호表記와 離接適用은 별개의 것이다. 그리하여 Kiparsky (1973)는 離接適用을 위해 餘他條件(elsewhere condition)을 제안하게 되었다.

뭐니뭐니해도表記規約 가운데 가장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은 별표表記이다. 이表記는 Cheun (197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同時適用을 규정짓고 있는 별표表記는 自然言語에서의 規則의 反復適用(iterative application)과 再歸不可의 條件(irreflexive condition)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이表記規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찌하여 별표表記가 붙은 괄호 안에 있는 分節音이나 資質이, 괄호 밖에 있는 分節音이나 資質과 같은가 하는 점이었다. 별표表記를 사용하는 한, 이와 같은 사실은 항상 하나의 우연으로 취급될 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변화하는 變化要素(focus)인 동시에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決定要素(determinant)인 까닭이다. 이와 같은 불만 때문에 Johnson (1972)이 規則의 反復適用을 제안한 것이다.

3.4. 그 밖의 規約과 原則에 대한 反省

우리는 앞서 SPE에서 表面形 [yüw]를 單母音의 基底形 /u/에서 導出하는 것을 보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아래 그 과정을 반복해 놓았다.

- (231) /u/
 i (172) u→i/ — C₀V
 yi (173) φ→y/ — i
 yiw (159) 二重母音化規則
 yūw (174) i→ū
 [yūw]

(231)이 보여주는 導出에서 우리가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하여 u를 規則 (172)에 의하여 i로 바꾸었다가 다시 規則 (174)와 같은 絶對中和規則 (174)에 의해 u로 되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基底形 /u/로 하여금 母音推移規則 (168)의 適用을 받지 않도록 待避시키기 위한 것이다. 規則 (168)은 backness와 roundness가 일치하는 緊張母音에만 適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規則 (172)가 /u/를 ū로 바꾼다면, 뒤에 오는 母音推移規則 (168)이 이 ū를 [ɔw]로, 그리고 잇달아 適用되는 規則 (165)가 ɔw를 表面形 [āw]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導出을 막기 위해서, 基底形 /u/를 ū가 아닌 다른 母音으로 일단 바뀌어야 하는데, 母音推移規則의 適用을 피하기 위해서는 backness와 roundness가 일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면 i나 ū가 그 후보가 될 것이지만, 나중에 二重母音化規則 (159)에 의해 뒤에 w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後舌母音인 i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急行列車(母音推移規則)와의 충돌(u→ū→ɔw→āw)을 막기 위해 緩行列車(基底母音 /u/)를 잠시 待避(u→i)시켰다가 急行列車가 지나간 뒤 운행시키는 (i→ū)경우와 흡사하다.

規則 (172)가 英語使用者들의 言語能力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거의 자명하다. 왜냐하면 規則 (172)의 필요를 보여주는 交替形이 하나도 없으며, 또 歷史的인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그 점에서라면 絶對中和規則 (174)의 존재도 매우 의심스럽다. Ross (1972)는 (232)와 같은 예를 들어 [yūw]의 基底母音이 /u/와 같은 弛緩母音일 것이라는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232) *Bèrmúda, bàrracúda, canúte,*
áttribúte, mólecúle

表面形 [yūw]가 어떤 형태의 強勢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그 基底形에서 緊張母音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強勢를 부여하는 循環規則들은 非循環規則들 보다 앞서 適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分節音에게 어떤 規則이 適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規則이 適用되는 동안 그 分節音으로 하여금 그 規則을 받지 않을 모양으로 잠시 바꾸었다가, 다시 원상을 찾아주는 경우를 보았다. 다음은 주어진 어떤 表面形에 대해 自然스러운 基底形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基底形이 다른 表面形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한 基底形을 갖게

Chomsky와 Halle가 循環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예는 ³condensation과 ³compensation¹의 차이이다. 즉, 첫번째 單語단이 두번째 音節에 強勢를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은 이들이 각각 (235)에 제시한 것과 같은 基底形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35) [[condense] ate+ion] [[compensate]+ion]

다시 말해 *condense*라는 動詞形이 있는 것에 반해 **compense*라는 動詞形이 없기 때문이다. 즉, *condense*(')와 같은 動詞形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그 名詞形에서 두번째 音節에 強勢가 오며, *compensate* (1 2) 처럼 그 動詞形의 두번째 音節에 強勢가 없는 경우에는 그 名詞形의 두번째 音節에도 強勢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36)에 제시한 單語들은 자기 그 動詞形에서 두번째 音節에 強勢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名詞形들은 두번째 音節에 強勢를 갖지 않는다.

(236) *transfôrm-transfomâtion*
present-presentâtion
defâme-defamâtion
defôrm-deformâtion

Chomsky와 Halle는 *transfomâtion*을 [[transfôrm+ate]_v ion]_N에서 導出하지만, 그 基底形을 [[transform]_v ate+ion]_N으로 해석하는 안된다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incântation* 같은 單語는 **incânt*라는 動詞形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音節에 強勢가 놓여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Chomsky와 Halle가 *SPE*에서 시도한 제안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오류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 의해 *SPE*의 값어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시도한 것과 같은 비판도, 실은 *SPE*의 기틀 안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 볼 수 있었던 몇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McCawley (1974)의 말처럼 *SPE*는 Pānini를 포함한 어떠한 업적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言語에 대하여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해 주었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S.R. (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Brame, M.K. (1972), *Contributions to Generative Phonolog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Cheun, S.B. (1976), Rule application to its own output, *Journal of COE, SNU* 13, 211-215.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and Row.
- Hoard, J.E. (1972), Naturalness conditions in phonolog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English vowels. In Brame (1972), 123-154.
- Hyman, L.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Johnson, C.D. (1972), *Formal Aspects of Phonological Description*, The Hague: Mouton.
- Kenstowicz, M. and C.W. Kisseberth (1977), *Topics in Phonological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 Kenstowicz, M. and C.W. Kisseberth (1979), *Generative Phonology: Description and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 Kiparsky, p. (1973), 'Elsewhere' in phonology. In Anderson and Kiparky, eds. (1973),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93-106.
- Leben, W.R. and O.W. Robinson (1977), 'Upside-down' phonology, *Language* 53, 1-20.
- McCawley, J.D. (1970), On the role of notation in generative phonology, IULC.
- McCawley, J.D. (1974), Review of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IJAL* 40, 50-88.
- Ross, J.R. (1969), A reanalysis of English word stress. In Brame (1972), 229-323.
- Schane, S.A. (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loat, C., S.H. Taylor, and J.E. Hoard (1978), *Introduction to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ommerstein, A.H. (1977), *Modern Phonology*, Baltimore, Maryland: University Park Press.

Prolegomena to English Phonology (III)

Sang-buom Cheun

Abstract

In this last sequel of my paper, various proposals made by Chomsky and Halle in *SPE* have been reviewed critically.

In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it is shown that some of their underlying representations are too abstract, the only justification being to comply with the already postulated rules. It is also shown that some examples of bracketing or use of morpheme boundary lacks extrinsic evidence other than to derive the desired surface forms using the rules formulated beforehand.

In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three of cyclic rules (Main Stress Rule, Alternating Stress Rule, Compound Rule) are reviewed and their modification is proposed.

In the third section of this paper, the notational conventions used in *SPE* are examined. Among those notations examined are brace notation, alpha notation, parenthesis notation, star notation, super and sub-script notation. The non-sufficiency and non-necessity of these notations are pointed out.

In the last section of this paper, the lay-by principle, which is used freely in *SEP*, is criticized. It is also attested that Chomsky and Halle's argument for showing the necessity of 'cycle' is rather weak.